

CT
234.8
A3327

KDMT 49704093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구원론 소고

- 칼빈의 성화론 발견과 정립을 위하여 -

고 신 대 학 신 학 대 학 원

신 학 과

황 현 철

 고신대학교



DM00003899

1996 학년도

DM 00003899

284.2
8257
46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구원론 소고

- 칼빈의 성화론 발견과 정립을 위하여 -

지도교수 유 해 무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6 년 월 일

고 신 대 학 신 학 대 학 원

신 학 과

황 현 철

1996 학년도

황 현 철 의 논 문 을 인 준 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1 9 9 6 년 12 월 일

목 차

1. 서론 -----	1
1-1 문제제기	
1-2 논문의 의도와 목적	
1-3 연구방법과 범위	
2. 칼빈이 본 하나님의 구원 -----	4
2-1 칼빈신학의 특징	
2-2 칼빈신학에서의 구원론의 위치	
2-3 기독교강요 구원론중 성화론의 위치와 의미	
2-4 구원의 단계들의 내적 연관성	
3.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성화론의 본질 -----	11
3-1 칼빈의 구원론	
3-2 구원의 서정에 대한 칼빈의 견해	
3-3 칼빈의 성화론 -----	13
3-3-1. 하나님 은혜중심의 성화	
3-3-2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	
3-3-3 성령론적인 인간 구원	
3-4 구원의 서정과 긴밀히 연관된 성화 -----	26
3-4-1 믿음의 열매로서 성화	
3-4-2 일관성있는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성화	
3-4-3 칭의의 증거와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성화	
3-5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성화의 의의 -----	35
3-5-1.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신 목적	
3-5-2.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요건	
3-5-3.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4. 성화론과 한국 교회 -----	39
4-1 '예수-천당'식의 구원론	
4-2 피상적인 믿음의 이해	
4-3 기독교론에 머물러 버린 구원론	
4-4 전적무능의 율법에 얽매인 인간론	
5. 결 론 (논문을 마치면서) -----	43
참고도서 -----	46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 속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무를 합해 놓으셨으며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셔서 이 세 측면의 모두와 관계 맺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두 가지 측면인 믿음과 회개를 합해 놓으셨으며,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경건치 못한 행실을 버리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헌신 및 영적인 교제를 합해 놓았다.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그분께 나아 오는 것이다. 행함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다른 것이요 엄밀히 말해 죽은 것이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외쳤다. 복음의 핵심을 간파한 이 외침은 수많은 영혼을 천주교의 교권과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 안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게 했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신칭의’의 빛나는 진리가 오늘날에는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 비난받고 있다. 로마 천주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 교리는 인간의 선행을 폐지하고 인간을 게으르게 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억누르고, 의로 가는 길을 너무나 안일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공격하고 있다. P.T.Porsyth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킴으로 기독교에 결정적인 해를 끼쳤다고 비난하였다.”¹⁾ D.Bonhoeffer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켰다고 비난하였다.²⁾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목소리는 뚜렷하게 들려온다.

오늘날 교회들의 나약성과 부패들의 문제, 그리고 등록된 회심자들의 수는 많다고 하지만 사회에 대해 자꾸만 적어지는 영향력들을 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구원론, 즉 현재에 전파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선 벨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세계적인 강해

1) 기독교 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3) 중 “성화” 항목.

2) 본 웨프. 『나를 따르라』 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p. 31.

설교자인 존 맥아더는 지적하기를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릇된 희망을 갖게한다.이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영생을 얻을 수있다고 약속한다. 실제로 이런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반면에 주님이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나중에 미루게 한다. 그것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긴 하지만 악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진 않는다. 또한 이런 복음은 죄를 즐기고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거짓된 안전을 제시한다. 결국 믿음과 신실성을 분리함으로써 지적인 동의가 전심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 이렇게하여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죄인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는, 걸만 번지르해서 쉽게 믿을 수 있는 나쁜 소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서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³⁾

오히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자부하게 했다. 정말 맥아더의 지적대로 이 세대 교회는 구원받은 확신은 가르치나 교회 내에서 파괴되는 율법과 반탕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참석조차 그들에겐 짐이되고 있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막연한 생각에 잡혀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다.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인자가 올 때에 각 사람들에게 행한대로 갚아주리라.(마16:27)”,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뵈지 못하리라(히12:14)”, “한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수 없다.(히6:5,6)”는 등의 말씀을 듣고 선행을 하지 못하면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과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청소년기때부터 나의 고민이요 문제였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의 문제임을 알게되었다. 이러한 나의 의문은 바로 칼빈의 구원론과 성화론을 연구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교회가(특히 장로교회)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면서도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인 힘이 약화된 것은 구원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그중에서도 특히 성화론과 관련된 문제임이 틀림없다.

3) 존 맥아더, 구원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박성호 譯.(여수론,서울:1993).P 20

1-2 논문의 의도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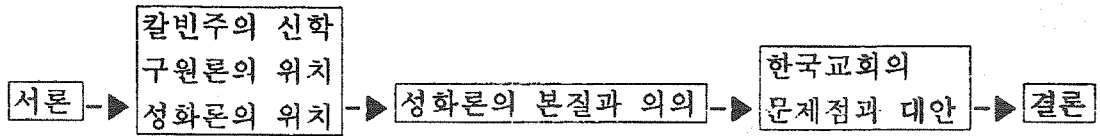
본 논문의 목적은 교회의 무기력의 원인을 구원론의 문제로 밝히고, 칼빈 성화론의 본질과 구원론적인 의의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교회와 신자의 성경적인 구원관을 정립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의 구현을 위한 교리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구원론의 위치가 다시금 성령론적인 구원론으로 조명되어야 하고, 성령론적인 인간론으로 칼빈신학이 결코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 구원론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현대교회가 무능하고 침체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은사의 부재보다는 참다운 복음설교의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능력있게 설교되며, 우리가 그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관심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⁴⁾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칼빈이 강조한 구원이 인간의 책임을 결코 배제한 것이 아님을 밝힘으로 세상에 참된 빛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교리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1-3 연구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주로 개혁주의(칼빈주의)에 대한 비판과 의문제기에 대하여 칼빈의 구원론을 재조명하고 성화론의 본질과 의의를 밝히는데에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그가 남긴 저서와 그의 뒤를 이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저서를 비교하여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목회적 차원의 방안도 간구하고자 한다. 이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신학적 체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타 그의 주석도 성화연구에 좋은 자료를 준다. 그리고 칼빈의 사상에 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연구논문과 저서들은 참고 도서로만 활용된다. 그러나 유해무 교수의 개혁교의학(Reformed Dogmatics in Outline)은 이 논문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의 칼빈주의 재발견이 나의 의문에 해답이 되었기 때문이다.

4) 로이드 존스, 에베소서 강해 1권에서 1:13의 성령의 인침을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과 능력있는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Sola Fide(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자들의 표어는 어떤 경우이든 자기의 (自己義)를 위해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칭의의 근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지 어떤 도덕적 행위나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부류의 사역에 있지 않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 믿음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요 모든 칭의의 토대이며 뿌리이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본론

2. 칼빈이 본 하나님의 구원

2-1. 칼빈 신학의 특징

칼빈의 신학사상은 개혁교회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칼빈의 신학의 정수는 그의 인식론에 있다. 여기서 인식론이라 함은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기독교 진리를 인식하는 신앙적 인식론을 말한다. 그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칼빈신학의 근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 그의 구원론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2-1-1 성경의 권위

칼빈의 믿음에 관한 지식의 신앙적 규범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의 신학은 철학적 사변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계시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성경의 증거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思考의 總體다.

그는 어떤 권위보다 성경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다. 그토록 칼빈이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칼빈은 바로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너무 명백하기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는 그 이유가 성경의 自足성 또는 自證성에 있다고 본다. 성경은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기 신뢰성을 가

지고 있다.⁵⁾ 그러기에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만든 것이다. 성경의 진리성의 주된 증거는 믿음의 증거요, 성령의 증거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이성보다 뛰어난다.⁶⁾ 성경은 인간의 부주의와 태만과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끼쳐질 피해와 변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하나님 자신의 조취이자 모든 세대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파악하고 진리를 위한 최선의 처방일 뿐 아니라 유일한 원천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결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가 마지막 날까지 공포되어 알려지기를 원하는 곳은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⁷⁾

2-1-2. 성령의 내적 조명

칼빈신학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내적조명을 강조한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비록 인간이 진리에 대한 열망과 사고하는 능력과 이성적 사고작용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만한 종교의 씨앗과 윤리적 기준이 될 만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런 능력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⁸⁾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알게 하시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그 말씀속에서 보게 해주는 빛이시다.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중으로 역사하시는데, 안에서는 그의 영으로서 밖에서는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¹⁰⁾ 칼빈에 의하면 우리들의 정신은 성령의 내적조명을 받기까지는 의심과 주저가운데 떠돌아 다닐 뿐이다. 영적인 것들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 밝혀지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되기까지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혜는 사람에게 미친 것일뿐이다.¹¹⁾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내적조명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기독교 성문출판사, 1990), 1권 7. 5.

6) 상계서 1권 7. 4

7) 상계서 1권 7. 1

8) 상계서. 2권. 2. 5 과 2.12 - 15

9) 기독교강요, 1권 . 9. 3.

10) 기독교강요, 2권 5. 5.

11) 상계서 2권 2. 20

모든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이며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구원의 도리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이다. 성령의 조명을 강조하는 칼빈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학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신학의 주된 흐름의 특징이 바로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의 필요성이라고 한다.¹²⁾

2-1-3 실천적인 믿음의 지식

바로 여기에서 칼빈의 구원론이 발전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실천적인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그 진리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는 기독교강요에 자주 사용된 ‘확신, 설득, 가슴’이란 말이 믿음의 지식에 지식에 대해 말해준다.

믿음의 지식이란 첫째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¹³⁾ 둘째로 이러한 확신은 그저 단순한 인간 이성의 합리적인 이해에서 오는 확신이 아니라 설득에 의해 확증되어지기에 주어지는 것이다. 셋째로, 그러기에 우리가 물리칠 수 없도록 설득하시는 성령의 확증은 우리의 이성과 두뇌의 차원보다는 우리의 가슴에서 이뤄진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내적조명이다. 칼빈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지각의 조명과 마음의 확증의 두 단계로 설명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하여 확증됨이 없이는 지각이 조명받는 충분하지 않다고 함으로써¹⁴⁾ 믿음의 지식에서 가슴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으며, 나아가 단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실천과 삶으로 직결되는 신앙을 가르쳤다.

칼빈연구가들은 그의 교리를 ‘실천의 교리’라고 평가한다. 그의 믿음의 지식은 실천적인 지식이다. 이 실천적인 지식이란 그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 그것은 유익한 지식으로서 나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우리를 실천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말한다. 그 지식이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포용하는 것이며 경험속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지식은 헛된 사변보다는 생생한 경험으로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복음은 허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이며,

12)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제3권, 이형기 譯 (장로회출판사, 서울:1990) p.211

13) 기독교강요, 3권, 2. 14.

14) 기독교강요, 3 권, 2. 33.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결실해야 한다.¹⁵⁾

분명 칼빈이 말한 믿음이란 실천적이다. 그리고 열매로서 확증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존경과 절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구원의 지식은 숭고하고 신비하므로 그만큼 더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사고는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학교에서 유익이 있는 것이다.¹⁶⁾진정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거룩해 지는 것을 그의 신학의 목표로 삼고 구원과 내세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였다. (벧전 3:15)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칼빈이 성경속에서 발견한 믿음은 실천적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구원론과 성화를 이해하는데도 사변적이 아닌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2 칼빈신학에서의 구원론의 위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구원론의 위치는 제 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타락전 인간, 제2권은 타락한 인간과 그 상태와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제3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나와있다. 이는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에 있고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속죄사역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완성된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신다. 그러므로 구원이 3위하나님의 사역이며 동시에 인간의 임무임을 말해준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신인협동설'이나 '자력구원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의 적용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사역은 필수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죄인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객관적으로 완성된 구원을 인간에게 적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구원론은 성령론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이미 획득한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론 중 구원론은 전통적으로 '구원의 서정(ordō salutis)'로 알려져 왔다. 이는 성령의 사역인고로 예수

15) 상계서 3권 6. 4

16) 기독교강요 3권 .2. 34.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역사를 전제로 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역사가 성령으로 가능했다면,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다. 이 구원론은 특히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첫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의 몸인 사도적 교회에 주어지게 된다. 성자의 파송은 받은 성령의 유일한 목적은 교회시대에서 성자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있다.¹⁷⁾ 한마디로 말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띠이다. 성령은 우리속에 믿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다시말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된 것들이 성령의 은밀한 사역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¹⁸⁾ 그러므로 칼빈의 구원론은 반드시 성령론중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첫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둘째, 구원과정은 영혼의 주관적인 변화과정이 아니라 전인의 변화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2-3 칼빈의 구원론에서 성화론의 위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3권에서 구원론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4권 가운데 어디서부터 성화론이 시작되는가에 대한 의견이다. 기독교강요 3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내용(주제)
1 장	성령(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성령의 비밀한 사역)
2 장	신앙(믿음)의 정의와 특성
3 - 5장	신앙으로 말미암는 중생(회개)
6 -10장	성경이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삶
11 -13장	칭의론
14 -19장	칭의의 지속적인 진전,선행,그리스도인의 자유
20 장	기도
21- 24장	예정론과 선택
25 장	부활

W.Niesel 은 제3장 회개론부터가 성화론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칼빈이 성화를 회개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제 11장 칭의론에서부터 성화론을 본격적으로 언급한다고 보았다.¹⁹⁾

17) J.Breck , 「Come,Holy Spirit,Renew the Whole Creation (1991)」 p.66

18) 상계서. 3권 1. 1.

19) 빌헤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석 譯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1990),p.125

F.Wendel은 W.Niesel과 비슷한 견해를 가졌으나, 그는 제 6장 그리스도인의 생활부터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까지를 성화론으로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은 칼빈이 칭의 전에 믿음과 회개를 다루는, 다소 익숙치 못한 순서를 택한 이유를 이 신칭의(以信稱義)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증생을 강조하고 그것들이 거룩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저들을 대항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이 공히 칼빈이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신학적논술을 함에 있어서 이분법과 제유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칼빈이 사용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 3 권의 제목을 “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구원의 유익과 그 결과들”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유익과 그 결과들로 설명한다. 사실 칼빈이 말한 복음의 전체(sum of The Gospel)도 '회개와 죄사함'이다.²⁰⁾ 칼빈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이중의 은혜를 언급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함으로 두 가지 은혜를 받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성화되어 순결한 삶을 신장하게 되는 것이다.²¹⁾ 즉 칭의란 성화의 이중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두 속성인 의와 거룩이 분리될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²²⁾ 구원에 관한 어떤 하나의 용어는 관련된 다른 용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함께 파악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이 칼빈의 이분법을 잘 이해함으로 그의 성화론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제유법이란 하나의 용어로 관련된 다른 용어를 설명하거나, 또는 다른 전체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화목을 말할 때, 화목 하나만을 말하지 않고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죄사함과 칭의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를 유교수는 '내적 연관성'으로 말하고 있다.²³⁾

칭의란 하나의 용어를 사용할 때에 죄사함, 화목 등 칭의에 관련된 전체 사항을 말하기도 한다. 회개를 말할 때 회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증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개, 증생, 성화는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Niesel이나 Wendel은 칼빈이 이 구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동일시했다고 오해했다. 그래서 Niesel은 3장 회개부터 성화론으로 보았고, Wendel은 6장부터 성화론으로 보았다. 실제로 칼빈은 각 구원의 단계들에 대하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각 단계들의 특이성을 인정한 것이다.

20) 상계서. 3권 3. 1.

21) 상계서. 3권, 11. 1.

22) 상계서, 3권. 11. 6.

23) 유해무 개혁교의학 (고려신학교 1995.부산) p 221

예를 들어 회개와 성화가 동일한 범주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회개의 정의는 육을 죽이고 영이 소생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²⁴⁾ 성화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순결하게 되어 바쳐지는 것이다.²⁵⁾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칭의 자체가 화목은 아니다. 칭의됨으로서 화목되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여러 곳에서 비록 제유법적인 사용이 있더라도 각 용어들을 분명히 정의함으로 그 용어들이 서로 혼동됨을 피하였다. 이로 보건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론의 정의를 시작하는 것은 3권 14장 “이신칭의의 시작과 그 지속적인 진전”에서 19장 “기독교적 자유”까지로 보면 되겠다. 칼빈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자이므로 그의 논술에는 논리적 순서가 있다. 그는 11장에서 13장까지 칭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13장에서는 칭의에 대하여 유의할 사항까지 말하면서 칭의에 대해 일단락 짓고 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칭의의 지속적인 진보’라는 제목으로 칭의를 받은 자가 반드시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성화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부분이 그렇겠지만 칼빈은 회개와 성화의 긴밀한 ‘내적연관성’을 주장한다. 회개를 언급하면서 당연히 성화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신자의 전체 삶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4. 구원의 단계들의 내적 연관성

구원의 순서에서 구원의 각 단계들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가 있을 뿐이다. 그 단계들은 시간적으로 는 동시에 일어난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단회적인 사건이 있고 지속적인 과정이 있으나 구원의 모든 단계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요1:12-13)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중생은 믿음의 결과이며 또 믿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 순서는 완전히 일치한다.”²⁶⁾

24) 상계서. 3권. 3. 5.

25) 상계서. 3권. 14. 9

26) 칼빈, 『신약성경주석』 제 3 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37 -

요컨대, 칼빈은 구원의 순서의 각 단계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동시적이고 유기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중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처음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주는 여파가 신자의 거듭난 삶에 지속적으로 미치게 된다. 그리고 회개도 믿음의 시초에 일어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속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믿음 또한 칭의뿐 아니라, 성화에서도 필수적이다. 칭의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어지지만 칭의가 수반하는 혜택들의 수유를 위한 노력이 칭의를 얻는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성화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와 동시에 주어진다.²⁷⁾ 믿음과 회개도 동시적이다. 중생과 더불어 그리고 칭의와 함께 성화가 시작된다. 이와 같이 구원의 단계들은 동시적이며 또한 서로 연관성이 깊다. 그러므로 칼빈은 구원의 여러 단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 은혜의 선물들은 분리할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칼빈은 고리도후서 7장10절을 주석하면서도 믿음, 회개, 칭의 등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들로서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동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

3. 칼빈이 말한 성화론의 본질

3-1 칼빈의 구원론

칼빈의 성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구원론의 특성을 살펴야 한다. 이는 숲을 먼저보고 나무를 살피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앞서 말한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특징상 3권에서 본격적인 구원론이 전개되지만 구원의 근본 전제가 되는 사항은 2권 12장에서 17장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기독교론적 구원론' 혹은 '완성된 구원', '재관적 구원'이라고 하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죄를 타고난 죄인으로 저주를 받아 노예 상태에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

둘째, 죄로부터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안에서만 있다.

셋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뤄진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란 전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일4:19), 우리의 죄악과 비참과 가련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게 하심으로 구원이

27) 상계서.제3권.11. 1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으로 확증되어졌다.(롬5:8)

3-2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에 대한 칼빈의 견해

구원의 순서(Ordo Salutis)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의 백성에게 적용시 키실 때 어떤 순서가 있느냐’는 논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구원의 서정(Ordo Salutis)²⁸⁾에 대하여 논하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그 중에 속한 성화에 대한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에 대한 세가지 다른 접근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J. Murray, L. Berkhof 그리고 J. Wesley의 주장이다.

먼저 John Murray는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을 성경으로부터 명확하게 추출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하기를 “구원의 다양한 과정이 어떠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순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하고도 결정적인 이유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고 했다.²⁹⁾ 그가 제시한 근거는 다름아닌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대로 구원의 서정(Ordo Salutis)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르심 - 중생 - 믿음 - 회개 - 칭의 - 양자됨 - 성화 - 견인 - 영화

그러나 G.C. Berkouwer는 말하기를 성경에서는 구원의 고정된 순서를 추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로마서 8장 30절이 J. Murray와 반대로 구원의 순서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이란 말보다는 구원의 길(Way of Salvation)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는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여정속에 있는 하나의 구분점으로 생각되어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전생애에 걸쳐 널리 편만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³⁰⁾.”고 하였다.

28) 1737년 루터파 신학자인 야콥 칼포프(Jacob Carpov)가 이 문제를 기술하면서 처음으로 “Ordo Salutis”를 만들어 내었다. 신교와 구교를 망라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을 제안해 왔다.

29) 존 머레이, Redemption: Accomplished &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55), p. 416.

30) G.C. 벨카우 『Faith and Justification (Grand Rapids 1954)』, p. 31.-

루이스 벨고프는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구원사역이 죄인의 삶과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며 그것은 구원과정의 논리적인 순서로, 또한 그 과정의 상관연관 속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구원사역의 적용 가운데서 다양하게 역사하는 사역을 기술했는데 그 목적이 있다”³¹⁾ 고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상과 같은 형태의 구원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존 웨슬레는 좀 색다르게 구원의 순서를 말한다. 그는 선행은총론(Preventing Grace)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다. 즉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그 개인의 책임이다. 또한 그는 성화를 일반성화와 온전한 성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완전 성화를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다

그러나 개혁은 구원의 순서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시혜(dispensatio salutis)'로 본다. 즉 성령께서 각인에게 적용하시는 은혜이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인 사역은 아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이미 성령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그것은 성부의 것이다(요16:14-15). 이처럼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신다. 이 완성에는 우리의 자리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속에 구원의 순서가 근거하지 않고, 성령사역을 점진적으로 표현한다. 구원의 순서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적 진전, 즉 인간에게 나타나는 '말씀과 성령에 길'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 정확한 순서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요성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소유되는 그 길, 과정을 묘사하려 한다.

3-3 칼빈의 성화론

칼빈이 말한 성화론의 본질을 논하기 전에 성화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자. 성화론은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신다. 칭의로 우리를 당신 앞에 선 상대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소

31) 루이스 벨고프, 『조직신학(서울,1984)』, p.415-41-

유로 삼으시고 당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사40:25,49:7.) 그러나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며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나타내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거룩은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근하게 향함의 동기"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스라엘로 보아서 하나님의 심판이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지키시고 계시며 이 거룩을 주실 수 있다. 이 거룩은 당신의 택한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택한자들은 자신을 지키면서 자신을 드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다.(레11:44,19:2,20, 벰전1:16,요일4:19). 그렇지 않고 죄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멸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이것이 구약의 성화이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요6:69, 눅4:34, 막1:24).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주시는 것임을 말해 준다(히10:10,13:12).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거룩하여졌다. 그러므로 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었다.(히12:10)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벰후1:4). 칼빈은 칭의와 관련하여 인간을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에 파묻혀 있는 자이고, 둘째,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여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세째, 사악한 마음을 헛된 의식으로 감추는 위선자

네째,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갖는 자이다.³²⁾

여기서 성령에 의해 중생된 자는 반드시 성화에 관심을 갖는다.

칼빈은 계속해서 성화에 관심을 갖는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성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 이제 넷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의를 가졌는지 검토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의 의의 중재에 의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며 죄를 거저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동시에 이 은혜는 큰 자비와 연결 되는데 이 자비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그 힘으로 우리 육의 정욕을 날마다 더 죽이시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성결케 된다.

32) 존 칼빈 . 기독교강요 . 제3권. 14.1.

그리하여 순결한 생활을 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³³⁾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욕망이 매일 점점 줄어가므로 우리는 실제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듯 성화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기초로 하고 있고, 성자 예수님의 영원한 썩지 아니할 피로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도 성화되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성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로마서 6장12-23의 명령은 6장11절의 사실 “이와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찌니라.”라는 확인과 인식위에서 가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 성화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믿음으로 이루어 진다(고후3:5) 믿음으로 의로와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의로와지고 거룩해져서 완성의 단계로 나가며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롬6:22). 모든 성령의 사역이 그러하듯이 성화도 성령의 은사이자 우리의 사명이다. 이처럼 성화, 즉 거룩하여짐은 하나님의 사역(고전1:30)이며 동시에 우리의 사역(살전4:3)이 된다.

성화의 은사와 임무는 연속적이다. 우리는 삼위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론의 특징은 ‘우리 대신’이나, 성령론의 특징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증거하고, 기도하고, 동거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자리가 있다.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말이요,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본받고(고전11:1),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다.(고전4:16, 갈4:12)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롬6:4-6). 그러나 이것은 기독론적 구원론에 거친다. 더 나아가서 성령론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로 거룩하여 지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칼빈이 말하는 성화는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계속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엡4:12,13 ,4:22 -5: 2, 빌1:9-11, 고후7:1, 골3:5,20).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자신 속에 이뤄지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바치는 일이 앞서야 한

33) 상계서. 3권 14. 9.

다.(롬12:1) 다시말해서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뤄가시는 점진적인 과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봉헌되어질 때 계속 활기차게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께서서는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생활의 변화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전진하게 하신다.³⁴⁾”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불충분하다거나 불완전해서가 아니다 인간의 무지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완전하고도 충분한 구원의 은총을 단번에 받아서 완성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번에 받아들여 구원이 완성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화는 주님의 재림시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다. 다시말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화에 대한 나태와 안정은 줄 수 없는 것이다. 칭의를 받은 신자에게도 죄의 흔적은 항상 남아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잘 아는 사실이다.³⁵⁾ 신자들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죄가 있다. 이 세상에서 성화를 경험하지만 현세에서 죄없는 완성은 경험하지 못한다.³⁶⁾ 칼빈은 완전무결한 순결을 반대한다. 그리고 완전 성화도 반대한다. 성령께서 성화의 사역을 하시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한 완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와 꾸준히 싸우며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들이 주의 날에 흠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세에서 가장 훌륭한 계획도 진보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는 때 뿐이다....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덕을 완전하다고 할 때에 이 완전성에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³⁷⁾”

칼빈은 현세에서의 성화의 완전 성화는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성화를 향한 신자의 노력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다.

3-3-1 하나님 은혜 중심의 성화론

칼빈의 성화론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구원과

34) 상계서. 3권, 9. 2.

35) 상계서. 3권, 9. 2.

36) 상계서. 3권 3.10.

37) 상계서, 3권 3. 4.

성화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다(엡1:6). 은혜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서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는 풍성하며(시84:11, 벧전5:10) 결코 더디지 않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처리하시는 방법일 뿐 아니라 또한 신자들의 삶과 봉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신자들에게 갖가지 은사로로 완전케 하신다(엡4:7-13),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고(엡1:7),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고후3:18),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 올라가며(히11:5), 변화하여 그분과 같이 된다(빌3:21).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고전3:6,7, 골2:19).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안에 참여하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속에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속에서 점차 성장해가는 것이다. 거룩함에 있어서도 계속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럴때에 죄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거룩함은 성장한다. 그러나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갈5:4). 그러나 신자는 은혜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요10:27-29)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외에 다른 것을 의존한다면 그는 은혜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아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혜를 혹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절대성이 인간의 도덕적인 자울에 어떤 모순과 희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지켜지고 보존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의 원천이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은 도덕적인 거룩을 포함한 것이다. 신자들의 거룩함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신앙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양자). 이 양자됨이 곧 중생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신앙을 보시고 은혜로 의인(義認)하신다. 그리고 이 칭의된 자가 중생한 자요, 구원받은 자이다. 이 은혜와 신앙으로 비로소 기독교적 자유가 확보되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의인, 양자, 중생, 새피조물된 자들은 소극적 의미에서

복음적인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적극적으로는 성화를 불러일으킨다. 성화, 거룩한 삶에로의 열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다. 칼빈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주 역설하였다.

“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動力因)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질료인은 아들 하나님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며, 목적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³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므로 그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영을 소생시키는 이 일을 반복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신다.³⁹⁾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없다면 성화는 전혀 불가능하다.

3-3-2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

믿는 자들도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이르렀어도 완전한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루터는 신자를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simul iustus et peccator)’라고 말한 것과 같다.

기독교인은 성화의 과정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앞에서 항상 부족한 죄인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중생한 신앙인은 항상 전진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자신의 연약성을 끊임없이 뉘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고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주장하면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교회사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속되어 왔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써 내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사망 선고 아래 있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에 절대적인 능력을 부여한 셈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에 대항해서 말했던 5

38) 상계서. 3권 14.21.

39) 상계서 3권 14. 9.

개조항은 어쩌면 인간을 전적으로 배제해 버린 느낌이 든다.

전적부패(Total depravity) - 죄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다.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

제한된 구속(Limited atonement) -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불가 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 구원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성도의 궁극적인 인내(Perseverance of the Saints) - 택한 자는 천국까지 보호된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에게서라기 보다는, 칼빈이 죽은지 50년이 지난 뒤에 화란에서 작성된 도르트신경 (The Canon of Dordt)에서 시작된 말이다.⁴⁰⁾ 그리고 이 교리가 나오게 된 상황으로 이것은 구원에 대한 알미니스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고 보호하려는 칼비니스트들의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이 용어들이 칼빈의 신학의 전체를 나타낸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는 하지 못한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교리를 효과적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 칼빈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구원에 있어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반응과 태도와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반응과 태도는 다시 우리의 눈을 '칭의'로 돌리게 한다. 칭의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의(πῶς)란 광범위한 의미를 가졌는데, 신앙인이 의롭다는 것은 야웨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언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들간에 관계가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약속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위치를 지킨다는 말이 공로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은 그에게 생명이 다.⁴¹⁾ 의란 이와 같이 관계의 개념으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대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언약 안에서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대로' 대하지 않고, 의로 그들을 구원하신다.(시편 71:2)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을 요구하신다.(미6:8)

성자 하나님은 '오실 의로운 가지'시다. 곧 그는 '우리의 의'다(렘23:6). 바로 이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인정할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40) 이근삼, 칼빈.칼빈주의,(엠마오 1989:서울) p 84

41) 유희무, 개혁교의학 (고려신학대학원 :1995) p 241

때, 그도 의로와 진다.(롬3:22) 따라서 그리스도 바깥,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칭의가 없다. 그러나 이 칭의는 구약 언약의 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 태도를 지칭한다. 이 때 칭의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삶전체를 이끌어간다.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이 '의'와 '생명'은 불가분리적이다. 의의 은사로 시작된 삶의 목표는 영생이다. 성령은 이 새생명의 능력이 다.⁴²⁾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는 반응하고 노력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행하지 않는 것은 주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인간 내부에 남아 있는 부패와 나태함과 마귀의 방해 등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결코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무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구절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강조된 구절 - 엡1:11, 롬9:21, 잠21: 1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구절 - 요3:16, 마16:27, 계22:12, 벨후1:10,11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구절 - 눅22:22, 행2:23, 빌2:12,13

말씀들 통해 볼 때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인격체이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요, 동시에 책임을 갖는 존재다. 그러므로 칼빈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고수하면서 또한 사람의 분투와 노력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논리적 모순을 완벽하게 풀지는 못했지만,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성에 복종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유순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사실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신학을 세우기 보다는 칼빈은 오히려 논리의 충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충실하려 했던 것이다. '성화는 Indicative(서술적인 사실)인 동시에 Imperative(명령)이다.'⁴³⁾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요, 동시에 인간의 노력이 따르는 의무이기도 하다. 즉, 100%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요, 100% 인간의 의무다.

칼빈주의 신학자인 존.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2) 유헤무, 『개혁 교의학』 p.241,242

43) 성화에 대한 다섯가지 견해 (IVP 1991: 서울) p 20

“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중지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자기의 부분을 담당하는 것처럼 구분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노력한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44)

A.호크마는 이렇게 말한다.

“ 성화는 신자의 노력이 포함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더욱 노력할 수있게 해주는 강한 능력이 생겨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된다. “45)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을 촉진시킨다. 성령이 역사하셔도 우리 속에 나태함과 죄의 부패성으로 종종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칼빈은 인간이성을 근거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버리고 신비한 성경의 방법을 택하였다.

칼빈의 교리는 실체의 삶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의 교리는 공허한 이론이 아니다. 복음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복음은 허의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교리이다. 오성이나 기억력만으로 복음의 교리를 알 수 없다.구원의 교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며 다음에 일상생활이 되며 우리를 개조시키고 동화시키므로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레변가들은 복음을 허끝에서 굴리나, 복음의 효력은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46) ”

그러므로 선행없는 믿음이나 칭의는 칼빈에게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47)

칼빈은 성화를 일평생 계속되는 전투적인 훈련과정으로 설명한다. 중생함으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 신자들안에는 여전히 악을 촉발하는 불씨가 있어서 죄를 짓도록 자극하기에 죽을 몸을 버릴 때까지 평생 죄와 싸워야만 한다.48)

44) 존 머레이, 조직신학, p 184.

45) 안토니 호크마, 「 개혁주의 구원론 」, p. 333.

46) 상계서 3권 6. 4.

47) 상계서 3권 16. 1.

48) 상계서 3권 3.14.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싸우는 훈련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 간다. 이런 시련과 훈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칼빈은 말했다.

이에 대해 호크마는 성화는 '죄의 오염'과 관계가 있다고 주의한다. 우리는 보통 죄책과 죄와 결합된 오염을 구별한다. 죄책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까닭으로 정죄를 받을 만한 상태 혹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죄책은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인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제거되었다. 그러나 오염은 인간 본성의 타락 즉 죄의 결과이며 또한 다른 죄를 낳는 타락을 의미한다. 타락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타락의 상태로 태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범하는 죄는 타락의 산물이며 타락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이 죄의 오염은 성화를 통해서 점점 제거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그 계략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부주의와 태만을 떨쳐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육체의 슬책에 불식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⁴⁹⁾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싸우는 훈련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 간다. 그리고 이런 시련의 훈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할 자로 인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각양각색의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다.⁵⁰⁾ 자기의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신도 지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거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십자가의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일종의 끊임없는 십자가에 불과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는" 것이 필요했다고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도는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종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얻도록 정하셨다고 가르쳤다(롬8:29). 따라서 역경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뜻하신 길이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역경의 길을 통과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것 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여 같은 영광으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행 14:22).⁵¹⁾

49) 상계서, 3권, 3.14

50) 상계서, 3권, 8. 1.

51) 상계서, 3권 8. 1.

그리스도인은 낮에 속하였다(살전5:5,8). 그러므로 근신하여 어둠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어두운 죄악과 치열한 싸움에 부름을 받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빛에 머무르게 된다고 칼빈은 강조한다. 기록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봉헌 하사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치도록 힘써고 죄의 더러움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고전 3:10,6:19,6:26). 우리의 영혼과 육신도 아울러 하늘의 썩지 않음을 얻겠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 주의 날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순결하고 부패함이 없도록 보전하기 위하여 사나이답게 싸워야 한다.52) “

칼빈은 계속 말하기를

“주께서는 앞으로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우선 지상에서 싸우고 노력 하도록 정하셨다. 그들이 싸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 전에는 개선 하지 못한다.53)“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탐욕과 야심, 정욕, 태만 등의 부패성은 심각하게 남아 있으므로 투쟁이 없으면 전진도 없다.54)

“그러므로 주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요 6:27)”고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다. 사도 바울도 ‘마귀를 대적하라(엡6:11)’, ‘땅에 있는 네 육체를 죽이고.(골3:5)’,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가라(엡4:13-15)’,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전9:27)’, ‘너의 구원을 이루라(빌2:12)’ 고 말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말이 아니다. “5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칼빈이 성화론은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경이다. 싸워서 획득하는 것이며, 댓가를 치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싸우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52) 상계서, 3권, 6. 3.

53) 상계서, 3권, 9. 3.

54) 상계서, 3권 9. 1.

55) 상계서, 3권, 8. 4.

3-3-3 성령론적인 인간 (은사이자 사명으로서의 성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살피되 이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우리 속에서 이루심을 주목해야 한다. 구원 완성이 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신 사역이었듯이, 구원의 적용은 성령님의 사역이 틀림없으나, 성령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일이다. 동시에 균형잡힌 성령론은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인간의 기여를 철저하게 배제한다. 그러나 성령론중 구원론에서는 인간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포함하신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단지 수동적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했지만, 성령론중 구원론에서는 인간이 '능동적'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확립시켜 주신다. 이 점에서 기독교 앞에 있는 인간론이 아니라, 바로 성령론중 구원론이 진짜 인간론이라 할 수 있다. 회복된 인간, 재창조된 인간, 새롭게 된 인간이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서 존재하는 인간일 수 없다. 다만 칼빈은 방법론적으로 배열했을 뿐이다. 구원론에서의 인간은 어차피 그리스도 뒤에 오는 인간이요, 성령안에서의 인간이다. 빌립보서 2장1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한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이미 빌립보서2:5-11에 요약된대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은 성령론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구속받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할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명령한다. 사실 칼빈은 이를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된 삶을 추구할 때,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는 예정론의 충돌이다. 선택된 자는 결국 은혜로 구원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강요 제2권 6장에서도 이 문제는 나타난다. 이것에 대해 칼빈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주석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자이시다. '도우시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도 무엇인가 행함을 지시하고 있다."...우리의 의지 행위는 본성의 일이나, 바르게 의지함은 은혜의 일이다."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행위가 우리의 것이면서도 성령의 사역임을 역설하였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뜻을 주시고, 또 일할 능력도 주신다(빌2:13). 구원은 우리가 이뤄야 할 우

리의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앞서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인 구원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G.Schrenk는 그의 '신약 신학 사전'에서 'ευδοκία'를 신자들 속에서 소원과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작정의 집행을 이룸을 보여준다. 성령론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συνεργοι 고전 3:9)로 사역하는데 있다.⁵⁶⁾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성령론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더 나아가 칼빈은 구원의 은덕들을 '은사와 소명'의 측면에서 이해한다.⁵⁷⁾

신론에서 다룬 인간론은 타락을 통해 하나님과 강한 단절과 비연속성이 주장되지만, 참 인간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인간, 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성립되고 새로운 언약적 관계에서 안정된 인간, 즉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회복된 인간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고후5:17)"로 받으셨다. 삼위일체론과 인간론의 정립은 우리가 성령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으로 어떤 축복속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사실 삼위일체론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들을 다룰 때, 하나님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공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오히려 공유적 속성이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속성들'을 제한적으로 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초하여 삼위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령안에서 '우리의' 속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참 제한적이다.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삼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회복되어졌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존재론적 연속의 관점'에서 너무 쉽게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엄격히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본성과 본질은 마귀의 것으로 지배받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에 강한 불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원론에서 성경도 무작위적인 '인간'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안에서 회복된 참 인간을 말하고 있다. 그에게 이 성화론과 구원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구속받은 인간만이 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벧후1:4).

56) 상계서, 4권 1. 6.

57) 유헤무 개혁교의학 (고려신학대학원:1995) p 222.

그러므로 구원의 은덕들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은사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성품을 말하는 소명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삼위 하나님의 성품의 모범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요 곧 성화의 길'이다.

그러므로 성화론을 언급할 때 인간은 모두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것은 계속되어질 구원의 시혜에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3-4 구원의 서정과 긴밀하게 연관된 성화

3-4-1. 믿음의 열매로서 성화

믿음이란 단어는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믿음의 성격과 능력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데, 믿음이란 개념이 변화되어 온 역사를 먼저 살피고 진정한 칼빈이 말한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와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구약에서 믿음이란 인격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이 인격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통찰과 인정(認定)으로 나타난다.(고후1:9,골1:6,빌3:8)

중세교회는 신뢰로서의 믿음보다는 통찰과 인식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였다. 즉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내용을 알고 또한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중세의 신학자 안셀름은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고 했다. 즉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바를 승인하고 복종할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야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을 개진된(Fides explicita)과 미개진된 믿음(Fides implicita)로 구분하여 전자를 믿는바를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후자를 믿는 내용은 몰라도 교회의 가르치는 바를 교회의 권위를 보고 무조건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분류를 한 까닭은 로마 천주교회의 교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교 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믿음의 이러한 구분 자체를 아주 맹렬하게 반대하였다. 그와 같은 구분은 성경에도 없을 뿐 아니라, 신자들을 교회 속에 속박해 두려는 교권주의적 발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칼빈은 믿음이란 미명 아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의 권위에 맹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다.

루터와 칼빈 이후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였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승인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신앙 행위는 신뢰와 관련된다. 지식과 승인이 신뢰까지 나아가야만 참 신앙이 된다. 믿음의 구성요소가 지식, 승인, 신뢰로 생각한 것은 어거스틴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어거스틴은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Credere Deum*),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는 것(*Credere Deo*),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결단해 나가는 것(*Credere in Deum*)으로 구분하였다.

종교개혁 이후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동보다는 이성에 바탕을 둔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강조되었다. 믿음을 지식의 한 분야, 그래서 인간의 학문의 한 영역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현대에 와서는 믿음은 신뢰로서 이해되기도하며 또는 지식으로 보며, 또 라인홀드 니브같은 신학자는 지식과 신앙의 역동적인 관계로 본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한 의견의 찬동이나,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다.⁵⁸⁾ 그러므로 칼빈은 믿음(신앙)을 이렇게 정의 했다.

“ 믿음이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 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에 조명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바가 된다.”⁵⁹⁾

여기서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지식으로 규정한다. 믿음이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다.(엡3:18,19) 그리고 이 지식은 감각이나 지각을 통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감각을 초월한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이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⁶⁰⁾ 믿음에 의해 얻는 지식은 모든 이성적인 이해력을 초월한다. 칼빈이 말한 구성 요소는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이 믿음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고상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죄와 비참성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다. 믿음은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The Mind*)을 조명시키시고, 우리의 의지(*The Will*)를 선택과 결단, 확고부동한 신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이다. 즉, 지성이 깨끗하여져서 하

58) 상계서, 3권 2. 2.

59) 상계서, 3권, 2. 7.

60) 상계서, 3권 2.14.

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이와같은 진리 이해 위에 마음이 확고히 서야 한다.⁶¹⁾

칼빈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신뢰하게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믿음의 좌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며... 믿음이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확실하고 효력있는 확신과 신뢰이이기 때문이라고 그의 로마서 10장 10절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지식은 신뢰를 포함하고 신뢰는 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지식은 체험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다.⁶²⁾ 더욱이 칼빈은 믿음과 선행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말같이 믿음으로 거룩하여 진다(행26:18). 믿음을 경건의 성향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⁶³⁾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되어 있다.⁶⁴⁾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는 성결, 곧 거룩함을 위함이다.⁶⁵⁾

믿음과 선행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회개도, 중생도, 성화도 있을 수 없다. 이 믿음으로 의인, 양자, 중생, 구원은 소극적 의미에서 복음적인 회개(repentance)를 불러일으키며, 적극적으로는 성화를 불러 일으킨다. 세상에서 얻는 지식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선행을 하도록 이끈다. 참으로 깨닫고 확신이 오면 행동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확신하고 깨달은 진리는 가만히 멈추지 않는 법이다. 믿음의 지식, 이 확신과 깨달음의 믿음의 지식은 우리의 행동과 심성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은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안에 있다. 그래서 비록 약한 믿음 일지라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안에서 선한 행위를 가져온다(딤후3:8, 약2:14-17). 또한 승리하게 한다(갈2:20, 요일5:4,5). 깨닫고 확신하는 지식은 선행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깨달는 만큼 행할 수 있고 확신하는 만큼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 확신에 의하여 담력(audaciam)이 나오게 된다.⁶⁶⁾ 그러므로 확신하는 믿음이 생길 때 담대하게 선을 행할 수 있다.

61) 상계서, 3권, 2. 33.

62) 상계서, 3권 2. 9.

63) 상계서, 3권, 2. 8.

64) 상계서, 3권, 16. 1.

65) 상계서, 3권, 2. 8.

66) 상계서, 3권, 2.15.

신뢰로서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성화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포기하고 위탁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영을 소생시키신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강요 3권,11.17.) 그런데 이 그릇을 비워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한 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자기부인’이라는 것이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육이 나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버리고 성령께 맡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신뢰요 성화를 이루게하는 원인이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67)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해지며 이 거룩이 줄이 되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속시켜 준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며 그의 거룩으로 순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화된다.68) 그러나 우리안에 있는 최악의 부패함이 이를 방해한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차게 될수록 참 깨달음과 확신, 신뢰와 믿음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 곳에서 권고하기를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후6:12)”,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히4:14)”,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전16:13)” 고 했다.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화가 된다.

이에 대해 칼빈은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이 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기에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우선 우리는 하나님에게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서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69)

다시 강조하면 믿음의 적극적인 반응으로서 성화는 반드시 수반되어 진다.

67) 상계서, 3권, 1. 1.

68) 상계서, 3권, 1. 4.

69) 상계서, 3권, 6. 2.

3-4-2. 일관성있는 회개의 과정으로 성화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복음의 요약이 바로 ‘회개와 죄사함’이다. 칼빈은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회개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이전 마음을 끊어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회개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진정 돌이키는 것이다. 그 돌이킴이란 순수하고도 진지한 경외심에서 야기되며 그 경외심은 죄의 참혹성과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실한 두려움이다. 회개는 그러므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욕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⁷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전향을 회개라고 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에는 외면적인 행위는 물론 내면적 영혼 자체의 변모를 뜻한다. 영혼이 그 옛성품을 버림으로 갱신과 조화되는 행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⁷¹⁾ 그런데 이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이런 회개의 외침으로 자주 보냄을 받았다.

“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케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사1:16-17) ”

그들은 사람들에게 악을 떠나라고 호소할 때, 악과 패역으로 가득찬 욕을 도 말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버리며 우리가 타고난 본성에서 떠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참으로 ‘죽음’이란 말 자체가 우리의 옛 성품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죽음”이란 말에서 우리는 만일 성령의 검이 우리를 쳐서 죽이고 견비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건의 초보도 배우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으려면 우리의 옛 본성이 죽어야 한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면,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와 몸을 멸하여(롬 6:6) 부패한 옛 본성이 더 이상 힘을 쓸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면 부활하여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⁷²⁾ 욕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70) 상계서, 3권, 3. 5

71) 상계서, 3권, 3. 6.

깨닫고 슬피하는 것이다. 자신을 가련한 자요 멸망받을 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와 교만함이 싫어 통회(contrition)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망의 상태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회복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앞에서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는 소원과 결단이 영의 소생이다.⁷²⁾

회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죄인의 마음이 회개를 할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 심판이 두려워 각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항상 있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시련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정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회개의 유일한 목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⁷⁴⁾고 말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엡4:2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에 의해 상실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 주께서는 생명의 기업에 참여하도록 입양하신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실로 이러한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신의 부패를 씻어 버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케 하시며 , 그들을 거룩한 성전들로 성별케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하여 참된 순결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평생동안 줄곧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 끝이남을 알게 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접근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안에서 더욱 빛난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생 동안 회개의 경주를 하게 하신다.⁷⁵⁾ 참다운 회개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활 전체의 거룩이다.⁷⁶⁾ 그

72) 상계서 3권, 3. 8-9.

73) 상계서, 3권, 3. 7.

74) 상계서, 3권, 3. 9.

75) 상계서, 3권, 3. 3,9.

76) 상계서, 3권, 3. 9.

러므로 회개한 자는 방종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⁷⁷⁾

칼빈은 독특하게 회개와 중생을 같은 것으로 본다.⁷⁸⁾ 회개가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라면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진 상태다. 그러므로 칼빈은 중생이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회개요, 돌이켜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중생이므로 회개와 중생은 목적과 내용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시할 점은 돌이키는 행위나 돌이켜진 상태나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중생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평생토록 회개의 과정을 가야하는 것이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은 회개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의 과정이나 성화의 과정은 같은 것이다. 들은 다음의 네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첫째, 관점의 문제다. 중생은 하나님편에서 본 신생이요 인간편에서는 회개인 것이다.

둘째, 들의 구성요소가 동일하다. 회개의 요소가 육의 죽임과 영의 소생인 반면에 성화의 요소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육의 욕망을 죽이고 영이 소생되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참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즉, 중생을 통한 회개 없이는 성화가 나타날 수 없다.

셋째, 들의 목적이 동일하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⁷⁹⁾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결하여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네째, 성화는 일평생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성화를 이루는 회개도 일평생 계속되어야 한다.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회개의 과정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기도와 죄의 고백으로 진행된다. 우리의 손은 매일 씻겨져야 한다. 매일 회개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 날 하루의 죄만 회개하면 족할 것이다. 회개는 노예의 과제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77) 상계서, 3권, 3. 5.

78) 상계서, 3권, 3. 9.

79) 상계서, 3권, 15. 7.

있는 것이다.⁸⁵⁾ 행위와 칭의를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다.(롬4:4) 또한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어선 않되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⁸⁶⁾

칼빈의 칭의론은 알미니안의 칭의론과 다르다. 알미니안들은 칭의의 요소중에 죄사함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을 부인한다.⁸⁷⁾ 그러나 칼빈은 칭의론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부인한다. 그것은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⁸⁸⁾ 인간의 행위는 불완전하기에 칭의는 물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없다.⁸⁹⁾

이제 칭의와 성화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칭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요, 사죄는 은총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성화는 이 은혜를 받고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순결한 삶으로 봉헌되는 것이다. 칭의는 단회적이요, 성화는 과정이다. 칭의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성화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부패한 성품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다. 칭의는 죄책과 관련된다면 성화는 죄의 오염과 관련된다. 칭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나, 성화는 각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지만 칭의와 성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성화의 은혜도 더불어 주셨다. 칼빈은 이 둘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이르기를

“ 우리는 무엇 때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믿음으로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함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하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관계로 결합되어 있다.(고전1:30) ”⁹⁰⁾

85) 상계서, 3권, 13. 2.

86) 상계서, 3권, 16. 1.

87) 루이스 벨고프, 『조직신학 (서울, 1984)』, 541

88) 상계서, 3권, 17. 1.

89) 상계서, 3권, 13. 3.

90) 상계서, 3권, 16. 1.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한다. 그를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거룩에 참여한다. 그리스도는 나누어 질 수 없기 때문에⁹¹⁾ 칼빈은 성화를 칭의의 증거와 지속적인 진보로 생각하고 있다. 즉 칭의와 성화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시는 은혜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성화되지 않을 자를 칭의하시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전혀 성화에 관심도 없고 성화의 증거도 없는 자는 칭의된 자가 아니다.⁹²⁾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3권 17장 12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선행(성화)으로 그 칭의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화는 칭의의 증거이다. 칭의는 법정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나, 동시에 효과적이다. 하나님의 선언은 선언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언은 잇다른 축복과 효과를 발생시킨다. 성화는 칭의의 사건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의지의 계속적 집행이요 현실이다. 성화는 칭의 사건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칭의와 더불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행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를 “실천된 칭의” 라고도 할 수 있다. 칭의는 치의 자체에 머물지 않고 구원의 전체 단계에 기초가 되고 영향을 미친다. 성화의 과정 즉 하나님의 은혜의 발전 과정을 막는 죄악의 힘들과 싸워야 하기에, 칼빈도 기독교강요 3권 14장에서부터는 제목을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진보”라고 하였던 것이다. 성화는 칭의와 더불어 시작된다. 또는 중생과 더불어 시작된다. 성화의 동기는 상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성화는 칭의에 의존한다.⁹³⁾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때에 거룩하게 된다.⁹⁴⁾

3-5 성화론의 구원론적 의의

3-5-1.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을 예정하신 자를 때가 되면 구원으로 부르신다(롬8:30).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이다(딤후 1: 9).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부르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시며 부르심에 대답할 수

91) 상계서, 3권, 16. 1.

92) 존 칼빈, 『신약성경 주석』 고전1:30

93) 상계서, 3권, 14.20.

94) 상계서, 3권, 7. 5.

있도록 역사하신다(요16:8, 히3:7,8).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도 구원 받을 자를 부르신다.(마22:2-4).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어떤 공로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회개(마3:2,4:17, 막1:14)와 믿음(마1:15,요6:29,30)을 위해서이다. 믿음과 회개로 응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믿음과 회개를 가져야 할 이유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성별되기 위함이다. 성경에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자주 불러 주신다(살전4:7,딤후1:9).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딤후6:12),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성화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다. 세상의 사악과 불결과 부패에 잠겨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평생토록 주저앉아 있다면... 구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95)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생활에로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죄에게 해방된 목적은 의에 순종하려 함이다. 만약 우리가 의를 위해 몸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다.96)).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 의무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곧 은사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노력없이 자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으로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자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완성을 위해 사역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더럽혀서는 안된다.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전 6:19).”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항상 부르심을 받은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97) 칼빈은 이렇게 강조했다.

“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부르는 요한의 말보다 더 강력한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95) 상계서, 3권 6. 2.

96) 상계서, 3권, 6. 3.

97) 상계서, 3권,17. 6.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 우리는 양자의 약속을 믿기 때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7:1) ”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모범으로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벧전2:21, 요15:10) 98) “

신자의 성화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셔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의 모범이란 인내와 은유뿐만 아니라 경건과 거룩에 관한 모든 의무가 포함되는 것이다99). 그러므로 신자의 성화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뜻이요 목적이다.

3-5-2 천국으로 가는 필수 요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지사의 번영과 복락이 아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 거기서 천국 백성과 함께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도 큰 목표이다.(엡1:12) 칼빈은 말하기를 “ 우리가 사후에 영생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의 처지는 야수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그것은 인간으로서 하나의 수치이다. ”라고 하였다.10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마땅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지상에서는 나그네 같이 살아 우리의 보좌인 하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101) 천국은 거룩함이 없이는 들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사35: 8), 성화되지 못한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성경은 진실이 아니다. 성화없는 구원도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뵈지 못하기 때문이다. (히12:14). 주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다. 악행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칼빈은

“ 주의 백성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거하여야 한다(시116:19). 주께서 이 도성을 자신의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셨기 때문에 더럽히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 장막안에 거할 수 있는 자는 흠이 없고 의를 구하는 자라야 한다.102)“

98) 상계서, 3권.16. 2.

99) 상계서, 3권, 15. 8.

100) 상계서, 3권, 9. 1.

101) 상계서, 3권. 6. 2.

102) 상계서, 3권, 6. 2.

고 말했다.

천국은 속세의 길을 따라서는 갈 수 없고 거룩한 길로 가야 한다. 거룩한 삶이 공로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상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훈련을 통하여, 천국을 엿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화된 자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¹⁰³⁾ 이땅에서 성화의 훈련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내세의 행복과 운명은 현세의 상태로써 결정된다.(고후5:9-10, 고전3:11-15, 눅19:11-17 참조) 죽은 후에는 회개도 못한다. 충분히 성화되지 못한자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즐겁고 기뻐게 살 수 없다. 거룩한 그곳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칭의란 비록 그 영향이 전생애에 걸쳐 미치고 다른 구원의 단계에 바탕이 되지만 성화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바로 거룩과 회개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3-5-3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함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드러난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성화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성화(행)은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여준다.(강요, 3권, 14.20.). ”

“ 선행이란 하나님의 선물로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하는 부르심의 표징이다
(강요, 3권, 14. 20.) ”

“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은혜를 받아 진정한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과 선행으로 받은 의를 증거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강요, 3권, 17.12.). ”

“ 주께서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에 나타내는 것이다. (강요, 3권, 6.3.) ”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게된다(요 13:35).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다. 또한 성화의 열매이기도 하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빌2:12-15). 우리가 아무리 공로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선을 행

103) 상계서, 3권, 18. 4.

할 필요가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그 은혜에 감사의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4. 한국교회의 구원론의 문제와 그 대안

4.1. 예수 - 천당, 불신-지옥 식의 구원론¹⁰⁴⁾

우리가 속한 이 한국교회는 여러 교단과 교파가 다양하게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일반적인 구원론이 존재하고 있는것 같다. 이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배워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듣고 인식하고 있는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천당'이라는 외침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자는 권고도 될 수 있고, 어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자는 권고도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를 믿게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여겨지게 마련이다. 이를 좀 더 풀이하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 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깨끗해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것, 즉 그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그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전혀 없다. 일단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고 과거의 행실과 언행은 조금도 따지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천국에 앉아 있는 것으로 가르친다.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일반적인 구원론이라 생각된다. 복음전도 집회의 주된 내용은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간략한 구원론이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요한다. 그리고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 즉시 구원을 선포한다. 그리고 믿는 순간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고 카톨릭을 향해 도전장을 내었고 이를 고수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한국

104) 오늘날 기독교 어떻게 저듭나야 하는가 (정훈택 著. 대장간.1991) 이하 p.15-30 중에서...

교회에서 의로워진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이것은 하나님앞에서,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같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비록 사악한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뿐 아니라 이미 재판은 끝났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홀가분하게 살아간다. 그것이 '진리안의 자유'라고 생각하며.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여전히 불안해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그 불안을 몰아 내려고 노력한다. 그는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에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시간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 이 구원론에서 인간의 행위나 의지가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다. 즉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위, 삶은 철저히 배제된 구원론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인간의 행위가 천국 상속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이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차이는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보상의 문제이지 구원과는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다. 이상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구원론이다.

사실 한국교회에 1000만명 이상의 교인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원론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원론에 입각하여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사람이 극소수가 될 것이다. 이 구원론에 의하면 믿는 자는 이미 천국에 있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믿음과 그 확실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다. 이 구원론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면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의 개념을 도입시키고 또한 '완전한 속죄사역'을 적용시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그렇게 메여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야 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된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없이 쉽게 죄를 짓게 된다.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신자들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안에서 죄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4-2. 피상적인 믿음의 이해.¹⁰⁵⁾

믿음을 '지적 동의'나 '인정'으로만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인정했기에 그리고 묻는 질문에 고백했기에 '구원과 천국 그리고 영원한 보종과 축복'을 선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기에 어쩌면 너무나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진리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보다는 믿음의 내용을 강조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가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남겨 주셨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진짜 믿음에는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예수님의 실체가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하며 그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구원론에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보다는 2000년전 유대땅에서 이미 모든 죄인과 나의 죄문제 마저 해결하셨고 천국까지 유업으로 주실 예수를 믿고 있다. 믿음은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요 방편으로 전락하고 만드하다. 그들에게 믿음은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것이요 생활을 만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체험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믿음은 능력을 체험한 것이라고 한다. 체험을 강조한 신비주의는 주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체험을 앞세워 지식위주의 구원론을 공격하고 기성교회는 죽은 믿음이라고 단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지금 역사적 현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데는 무능하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오늘날의 복음 전도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남긴 가장 큰 해악은 복음을 통해서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의 실상을 직면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⁰⁶⁾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4-3. 기독교적 구원론(칭의)에 머물러 버린 구원론¹⁰⁷⁾

한국 교회가 칼빈의 구원론을 따르고 그의 후어로 자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그의 성화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상 지적에서 보았듯이

105) 존 맥아더, 구원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수론, 1991:서울) p 27

106) 존 맥아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수론, 서울 1991) P 27

107) 유해무, 개혁교의학(고려신학대학원 1995) p221

인간의 의지와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사역,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칭의까지 구원론이 발전된 느낌이다. 이것은 칭의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원의 유익과 열매에는 관심이 적었다. 여기에는 교회성장 위주로 자라온 한국교회의 현실이 배경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슴 아픈 일이다. 칼빈이 가르친 구원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화되지 않을 자는 칭의하지 않으신다. 칭의에 성화에 전혀 관심도 없고 성화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자는 칭의된 자가 아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면 성화의 전투적인 삶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의 구원은 ‘오해’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교회를 향해 칭의론의 바른 인식과 과연 우리의 시점이 기독교적 구원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칭의만 해 주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성화의 은혜도 주신다.

4.4. 전적 무능의 율법에 매인 속의 인간론¹⁰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보다는 나는 어차피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식해 버리기가 쉽상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야릇한 자기 이해가 자신을 적극적인 성화의 과정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예 죄에 대하여 이길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모습들은 자신에 대하여 바른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주 세상에 눌러 살고 지키지 못한 율법들의 상처만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속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심으로 해결된 것이다.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증거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르 연합시켜 주는 끈이기도 하지만 성령 또한 구원의 전과정에 은혜를 주시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능력을 주신다. 그럼으로 나는 성화의 성령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은혜와 더불어 소명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구

108) 유해무, 개혁교의학(고려신학대학원, 1995) p 221

원의 완성을 위해 성령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완성에는 우리의 자리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사역에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론적 인간론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5. 결 론

요한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고, 지금도 경고하신다. 그중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행한 주님의 강한 말씀을 보면서 이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와 근본이신 이가 가리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 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시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시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시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4 -19절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된다. 칼빈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개개인의 구과 성화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것 같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교회의 직분을 가진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숨기느라고 오히려 더 세상적인 일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런 아이러니를 얼마나 자주 접할 수있는가?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하향곡선을 조금씩 그으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장위주의 목회철학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주는 달콤한 유익만으로 인도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점에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특히 피상적인 복음에 묻혀진 성화의 본질을 밝히고 그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은 나에게와 우리에게 의미깊은 일이다. 특히 칼빈의 성화사상은 지적인 인정만 요구하던 복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줄 것이고,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잡아주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쇄신과 능력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칼빈의 신학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을 따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칼빈이 말하는 성화는 한 마디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성령께서 신자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죽이시고 영을 살리시는 작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일평생 지속되게 하신 회개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런 칼빈이 말하는 성화론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성화론이요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론이다. 이러한 성화론의 발견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뭐든지 된다. 그리고 죄는 항상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죄짓고 생각하면 주님께 회개하지...하는 식의 안일한 신앙..미지근한 신앙을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화는 믿음의 열매이며, 일평생 계속되는 회개의 과정이고, 그 뿐 아니라 칭의의 증거가 바로 성화이고 지속적인 진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하나님은 성화되지 아니할 자를 결코 칭의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성화의 열심과 열매와 증거도 없는 사람은 그가 믿는 구원이 헛것이라는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이 신자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요건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한 길을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정하셨다. 성화되는 모습은 세상에 대하여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된다. 그 반대로 성화하지 않으면 신분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기독교강요를 통한 성화론의 발견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 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논문을 마치면서...

이 논문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면서 얼마나 내가 가르친 복음이 불완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저 고민만하고 기도할 뿐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이 땅에 칼빈 같은 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강의를 통해 도전과 지식을 전해 주신 유해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정을 나설 일만 남았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말씀 사역을 통해 나타낼 수 있을지 그것이 나의 남은 과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996년 12월 12일

참 고 문 헌

- J.칼빈, 기독교강요, 편집부 譯, 서울 : 기독 성문출판사, 1993
- G.I.윌리엄슨,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강해,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3
- 사무엘 던, 요한 칼빈의 신학진수, 서울 : 성광문화사, 1985
- R.C.리드, 칼빈이 가르친 복음, 정중은 譯, 서울 : 새순출판사, 1986
- 존 맥아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박상호 譯, 여수문, 1993
- 엘리스트 맥그라스, 이신칭의의 현대적 의미, 김성웅 譯, 생명의말씀사, 1996
- B.B.위필드, 구원의 계획, 모수환 譯,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성화에 대한 다섯가지 견해, 김원주 譯, 서울: IVP, 1992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요약, 이형기 譯,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9
-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譯, 대한기독교서회, 1990
- 기독교 대백과 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4
- 존 칼빈, 성경주석
- 사도행전, 애레미야, 빌립보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골로새서, 로마서
벌코프, 조직신학, 서울: 엠마오, 1993 .
- 안토니 A. 호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3
- 유해무, 개혁교의학, 부산, 1995
- 황영철, 구원과 윤리, 서울 : 대장간, 1990
- 정훈택, 오늘의 기독교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서울 : 대장간, 1991
- 이근삼 외, 칼빈주의 특성과 강조점, 서울: 엠마오, 1986
-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엠마오, 1980